

하용조 목사의 짧은묵상

하나님 앞에서 행한 구제의 모습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 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마 6:3-4).

어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모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도와줄 때에 자기를 의식하고나서 개입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준 것을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와서 "작년에 이만저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도 그것이 기억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하게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의 속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 하용조